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1~5/2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여백	법정 최인호	6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사유수	수신오도
2	무비스님의발심수행장강의	(주)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효림	우봉큰스님김현
3	붓다가말하는인간관계의지혜	문예출판사	타계태사/영	8	꿈을깨면 내가부처	정도	서암스님
4	불교기독교를는다	모과나무	이재열	9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민족사	동봉지음
5	당신, 선생에서 읽어드립니다	김영사	박진여	10	행복한불교이야기오대산정법스님이 들려주는	담연북스	자현



“남과 비교하는 시간만큼 자신에게 노력 쏟아라”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저자 지안 스님(사진)이 주석하는 양산 통도사 반야암에는 스님을 친견하고 인생의 조언을 들으려는 이들이 붐빈다. 스님과 마주대하면 따뜻한 미소에 근심 걱정이 바로 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스님은 절을 찾은 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안부를 묻고, 충고를 곁들여준다.



안부 지안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6천원



산승이 전하는 진심 담긴 안부 글로 “자신 객관화... 마음수행자의 특권” 이국적 사찰과 풍경 사진 80컷 수록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마음공부를 응원한다.”라며 마음공부를 독려한다.

저자는 인연법에 대해서도 말한다. “사람이 맺은 인연은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되는 인연발전이 있다. 발전이란 더욱 좋아지고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자기가 맺고 있는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한다. 인연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또한 무심에 대한 저자의 생각에도 고개가 끄덕여 진다. “언제나 옳고 그른 판단을 해야 해서 신경이 예민하지 않은가. 사사로 운 일에 시비를 엮두하여 생각이 많지 않은가. 그대들을 위해 꼭 추천하고 싶다. 짐목의 여백을 즐겨라. 생각의 심표를 찍어라. 불만과 허탈감을 직시하고, 흘러가게 마음의 강줄기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무심의 첫걸음이다.”

저자의 감로법론 못지않게 함께 실린 사진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적지 않은 시간을 타국서 보낸 조안 작가는 평범한 주변을 이용해 심신을 회복시키는 사진을 찍어 왔다. 이 책에도 타국의 풍경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서로 숨 쉬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사진으로 담겨져 있다. 이 것들은 정적이고 고요한 울림을 선물하며,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데 요긴하고, 따스하고, 정적이다. 산승의 현대와 감정의 깊이가 충만한 사진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협력하며 우리를 마음을 잔잔하게 적셔준다. 가슴 끝에 오는 단비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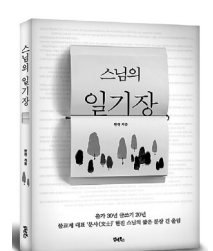
저자 지안 스님은?

1970년 통도사에서 백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 강주를 비롯,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 및 역경위원, 조계종종림 승가대학 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40여 년간 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는 (처음처럼)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마음속 부처 찾기)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 (대승기신론 신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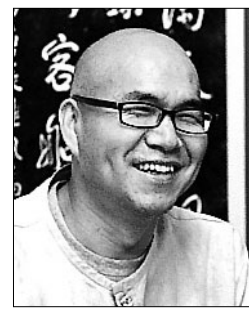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스님의 일기장

현진 지음 | 담연북스 펴냄 | 1만 4천원



스태디셀러를 다수 펴낸 현진 스님 <사진>에겐 올해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출가한지는 30년, 글쓰기 인생으로는 20년을 맞았다. 이 책은 스님이



찰로 일군 현진 스님은 3년 전 청원 성모산 자락의 작은 사찰 ‘마야사’를 창건했다. 지난해에는 마야사에서 반농반선(半農半禪)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 <산 아래 작은 암자에는 작은 스님이 산다>를 펴냈다. 스님이 ‘단순하고 소소한 게 하지만 간절하게 살아가는 일상은 담이 이 책은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구 문광부 우수도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책에 실린 143편 글에는 저자가 수행과 일상서 발견한 ‘깨달음’의 순간을 비롯해 사랑·돈·종교 등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통찰이 깊이있게 담겨 있다. 또한 불교경전과 선사들의 말씀, 동서양의 경구서 길어 올린 지혜가 가득하다.

스님이 글쓰기와 인연을 맺은 건 해인사 학인 시절. 월간 <해인> 필진으로 참여하면서부터다. <해인>은 현진 스님을 비롯해 성정 스님, 월철 스님 등 불교계에서 내로라하는 문사들을 배출한 사보(寺報)로 유명하다. 1982년 해인사 강원의 학생들이 대중 포교를 위해 창간한 이 잡지는 스님들과 세상 사람들을 잇는 가교이자 불법을 전하는 창구로, 지금도 불교신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진 스님의 글은 쉽다. 술술 읽혀진다. 문체 역시 간결하다. ‘좋은 문장’에 대한 스님의 남다른 소신에서 비롯한 것이다. 책의 머리말서 밝혔듯이, 현진 스님이 지난 20년간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 역시 쉽고 단순하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다.

월간 <해인>으로 글쓰기와 처음 인연 다양한 글과 문화로 대중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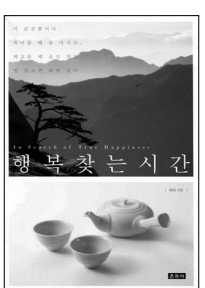
이를 전달하기 위해 스님은 날마다 자신이 보고, 읽고, 느끼고, 사유하는 모든 것을 글감으로 활용했다. 스님이 글감을 일구는 법, 아니 발견하는 법은 크게 세 개다. 첫 번째 법은 스님의 일상과 수행 생활. 선방에서 하는 치열한 수행뿐만 아니라 도반과의 즐거운 추억, 절을 찾은 신도와의 대화, 심지어 손빨래 같은 사소한 일상도 글의 소재로 활용한다.

두 번째 법은 스님이 읽은 불교경전과 선사들의 말씀, 세계의 고전 그리고 동서양의 경구서들이다. 마지막 법은 자연이다. 3년 전부터 산 아래 작은 암자에서 생활하는 스님은 “한여름 마당의 풀과 씨름하는 것이 수행”이라며 그 앞에 서면 한없이 작고 겸손해지는 꽃과 나무 그리고 계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님에게는 매화와 느티나무 그리고 안개마저도 삶과 수행을 반추하게 해 주는 좋은 소재들이다.

“마음 실체 깨닫고 그에 맞춰 세상 보라”

행복찾는 시간

해진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행복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저자

는 말한다. 그렇다면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그 실체에 맞춰 세상살이를 바라보면 된다고 한다. 따라서 1부는 마음의 실체를 깨닫기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2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부딪치는 문제들에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 1부 “생각 닦기”는 <신심명>을 모티브로 하여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장이다. <신심명>은 선의 종지, 불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으로 3조 승찬대사의 저서이다. 짧은 문구에 깊은 의미를 담

은 함축적인 계승으로 구성된 <신심명>을 저자 특유의 시각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의미, 교훈적인 메시지를 간결하면서도 쉬운 언어로 풀이해, 하나하나의 꼭지가 서론-본론-결론격의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온갖 망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2부 “생각 다스리기”는 우리 주변의 보통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부딪치는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인터넷 상의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생이나 주부로서의 고민, 가정문제나 꿈에서 오는 고민, 우울증이나 화병 등에 대

한 고민.....

살면서 부딪치는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과, 남들에게 잘 맞지 않는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민 해결의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

저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생들의 행복이다. 중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것을 수행자의 본분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런 발원의 결과물이자 출발점이다. 즉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해왔던 가르침과 실천의 결과물인 동시에, 여기서 더 나아가 일반독자들과 접촉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이 어떤 것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